

【영화 「데-레-가루즈」에 출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라다 마하 씨의 「데-레-가루즈」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하라다 씨 자신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오카야마를 무대로 우정 등을  
주제로 전개되는 청춘 이야기로서 이번에 이 소설이 영화화되어 벌써  
오카야마시에서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오카야마에 연고가 있는 소설이 영화화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던 중 뜻하지 않은 출연을 하게 되고 그저께 영화 주연을  
맡은 유키 미오 씨(NHK 「아마 짱」에 「GMT47」 멤버 오노테라 카오루의  
아역으로 출연 - 인상은 차분하고 심지가 강한듯한 분), 아다치 리카 씨  
(같이 「아마 짱」에서 「아메쵸」의 주역으로 아마짱에게 심술을 부리는  
아역으로 출연 - 실제론 항상 즐겁게 웃고 쾌활한 느낌, 심술과는 전혀  
무관)와 호칸쵸 상점가에서 녹화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과일 가게 주인」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목에는 수건,  
신발은 샌들을 신고서 과일 가게의 점포 앞에 서서 유키 씨 역할의  
사사키 아유코가 자전거로 씩씩하게 앞질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자극적이야」이라고 말하는 장면. 2컷을 녹음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양념 역할 ...)

대사는 한마디이었습시다만, 감독의 지시를 따르면서 타이밍을 보고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주인공을 배웅한다는 언뜻 단순한 것 같은 장면도 저의 움직임에 대해 「(그 움직임은) 수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돼!」 등 엄한 지시가 떨어져 깊은 연기의 세계를 실감함과 동시에 OK 를 받았을 때의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번 영화 출연도 조금 부끄럽기는 했지만 촬영에 동행한 멤버들에게 「전혀 위화감 없이 과일가게 주인 그 자체였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조금은 오카야마시를 PR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영화 「데-레-걸스」는 내년 2월에 오카야마에서 선행 상영한 후 전국에 공개됩니다. 꼭 관람하십시오.